

# 안철수가 움직인다…독자 세력화 박차

신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 토크콘서트도 재개

이사장에 최장집·소장에 광주출신 장하성 임명

광주시장 후보 거론 '張소장 행보' 정치권 주목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2일 자신의 '신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소로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의 창립을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내일'의 이사장에 진보 성향의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소장에는 장하성 전 안철수 대선캠프 국민정책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고 독자적인 세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특히, 장하성 소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진영의 광주시장

및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최장집 교수는 손학규 민주당 고문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창비 카페에서 기자 회견을 "내일"은 정책 전문가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완전한 개방형 구성"이라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분야에서 자생적인 시민참여포럼들과 연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내일'의 이사장에 최명예교수를 영입했고, 소장에는 측근인 장 전 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을 맡게 된 최명예교수는 현재 독일에 체류하며 오는 8월 귀국할 예정인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과 손 상임고문의 연내 가능성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은 작년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협상 와중에 손 상임고문과 단독회동을 가진 바 있다.

장 소장은 "내일"은 산업화·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준비하는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라며 "함께 더불어 잘사는 한국을 어떻게 만들지 구조적 변화와 개혁의 대안을 국민들과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방향

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장 소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장 소장을 안철수 진영의 광주시장 또는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진영 관계자는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며 "안철수 진영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 구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광운전자공과 체육관에서 '안철수의 노원콘서트'를 열어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토크콘서트 무대에 선다. 안 의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한차례 노원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창비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싱크탱크 성격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안 의원은 '내일' 이사장에 진보성향의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기운데)를, 소장에는 장하성 전 안철수 대선캠프 국민정책본부장(오른쪽)을 각각 임명했다.

/연합뉴스

## 박 대통령, 이남기 홍보수석 사표 수리

'윤창중 사태' 책임 물어 임명 94일만에 하차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윤창중 사태'에 책임을 물어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표가 수리됐다"며 "아시는 대로 (이 수석은) 이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달 초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턴 여성과 성추행한 의혹사건에 책임을지고 지난 10일 귀국 직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홍보수석에 임명된 지 94일 만이다.

이 수석 사표 수리는 청와대 인사와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여론의 큰 비판을 불러온 '윤창중 사태'와 관련, 윤 전 대변인의 직권면직 처리에 있어 직속상관인 이 수석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태를 마무리지으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박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 가운데 낙마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또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8명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인사 1호'로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인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0일 전격 경질된 뒤 닷새 뒤에 직권면직 처리를 받았다.

김 대변인은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진상이 밝혀지면 추가 책임이 있을지에 대해선 "오늘 (이 수석의) 사표 수리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책임은 없다"면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결과는 미국 수사기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위기 호남 정치권에 새 비전 창출"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 박혜자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게 된 박혜자 의원(서구갑)은 22일 "민주당은 물론 호남 정치권의 위기 상황에서 종책을 맡아 책임감이 크다"며 "하지만 결코 나약하게 머물러 있지 않겠으며 강단 있게 위기에 맞서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 창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으니 애정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극우 세력의 왜곡과 편웨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 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 마련 등 당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여성의 섬세함과 초선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뒤, "최선은 진심을 만들게 되고 진심은 소통을 이루게 된다. 소통을 통한 합법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민의 성원을 호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최고위원 박혜자·이용득

김한길 대표 여성·호남, 노동계 뒷 배려

정책위 부의장단에 황주홍 등 9명 선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2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혜자(서구갑) 의원과 이용득(60)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여성과 호남 배려 차원에서, 이용득 최고위원은 노동계 뒷으로 각각 최고위원에 임명됐다.

특히, 박혜자 최고위원 지명은 김한길 대표의 '깜짝 카드'라는 평가다.

조선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을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다 역대 광주·전남지역 여성 국회의원 가운데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지도부에 진출한 박 최고위원은 호남 민심의 창구 역할은 물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과제를 맡게 됐다.

전남 구례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전

라남도 복지여성국장,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 광주여성재단 이사,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甲)에서 당선됐다.

노동계 뒷으로 최고위원에 지명된 이 최고위원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전국 금융산업연조 위원장, 노사발전재단 공동이사장, 한국노총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은 한명숙 대표와 이해찬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을 지낸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때에도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바 있어 합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 층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과 관련, 외부 인사 영입도 적극 검토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제1정조위원장과 제2정조위원장에 각각 이춘석 김현미 의원을 유임시켰으며 제3정조위원장에는 윤후덕, 제4정조위원장에는 김용익, 제5정조위원장에는 유기홍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정책위 부의장단으로 원내에선 황주홍 의원(강진·영암·장흥)을 필두로 김기준, 김경협, 유대운윤관석, 전순우, 진선미, 한정애, 흥의탁 의원이 선임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원세훈 등 9명 고발

민주당은 22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인 박법계 의원과 신경민 국정원국기문란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

인에 있던 함모씨(4급)와 추모씨(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차장 실수와의 국익전략실이 3차장과 공동으로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면서 "국익전략실의 반값 등록금 문건, 박원순 재활 문건 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임대 목포. 2호 광장 코너

주인 임대함  
010-4667-9300

- 구, 맹수 한의원 건물(용당동 1056-5)
- 각층 100평, 1~5층 상가, 6층 고급주택
- 1층 - 아웃도어 매장확정
- 2층 - 한의원 확정
- 3층 -
- 4층 - 보험회사 확정
- 5층 -
- 6층 -

##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첨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격 요건
금형 사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CAD/CAM	00명	- 사출금형(종/대형) 유경험자 우대
CNC M/C	0명	- 학력: 무관
CNC 방전	0명	- 나이: 21~45세 이하(군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외이어케팅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사 출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사자유가 있는 분
3차원 측정	0명	- 식당 / 청소 : 나의제한 없음
직장	0명	- 사내식당 유경험자
		- 사내청소 경험무대/초보가능

• 근무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간 : 총원시 까지  
• 급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 1통  
2) 사진 ..... 2매  
3) 주민등록본 ..... 1통  
4) 건강진단서 ..... 1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아침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기휴가 등  
•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 가능(yooll@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m<sup>2</sup>(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로도 접

찾아오는길

선운지구

영광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증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